

부인 옷 목둘레의 변색 사고

부인용 옷의 염색된 목둘레에서 많이 생기는 변색 사고는 대부분이 네클리스(necklace : 목걸이)의 금속과 염색물이 접촉하여 생긴 변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고는 물로 적신 구리(銅) 조각이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10원짜리 동전(銅錢)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염색부위와의 접촉(接觸)시험으로 간단하게 사고 원인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옷의 목둘레에서 생기는 변색사고는 이상하게도 변색된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사해 보니 머리염색약 때문에 생긴 사고들이었다. 종전에는 머리 염색약에 헤어·다이(hair-dye)와 같은 산화염료(酸化染料)형의 컬러·트리트먼트(color-treatm

ent)나 헤어·매니큐어(hair-manicure)가 사용되면서 이들 염액이 실수로 옷에 묻어 변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요즈음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장 등에는 하도 많은 종류의 머리염색약이 염색된 머리카락 샘플과 함께 진열되어 있어 큰 메이커들의 선전에 소비자들은 품질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으며, 종전과 같이 “흰머리 염색약”의 판매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백발노인들을 고객으로 한 중소 머리염색약 메이커들은 찾아볼 수 없다.

법적으로 머리염색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색색소 중에는, 나일론이나, 실크, 울에 쉽게 염색되는 것이 많아 의복에 이들 염액이 실수로 묻어서 생기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수하여 옷에 머리염색약을 흘리거나 묻혀 “아차”하고 바로 옷을 벗고 씻어도 머리카락에 묻힌 약이 이미 목둘레에도 묻은 후인 경우가 많다. 배합

성분 중에는 조금만 살짝 묻어도 낮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빨리 염색되는 약이 있다. 또한 블론드(blonde ; 금발) 색으로 알고 머리를 염색하였는데 빨간색으로 염색되는 경우도 있다. 머리 염색약 때문에 생기는 사고도 적지 않아 유의하여야 한다.